

인 증 신 청 서

탐방 프로그램 해설가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목 표	주산지의 시대적인 변화를 통하여 보전성을 부각하고 주산지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운 영 장 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원구역 내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유 형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안내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 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해설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해안생태 <input type="checkbox"/> 갯벌사구 <input type="checkbox"/> 거점해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체험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경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경관 <input type="checkbox"/> 해안경관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슬라이드 <input type="checkbox"/> 탐방안내소 <input type="checkbox"/> 혼합()		
운 영 대 상	<input type="checkbox"/> 초등학생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일반성인 <input type="checkbox"/> 장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우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소수자 <input type="checkbox"/> 가족단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운 영 시 기	<input type="checkbox"/> 봄 <input type="checkbox"/> 여름 <input type="checkbox"/> 가을 <input type="checkbox"/> 겨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없음		
운 영 인 원	20명 이내(진행자 2명)	소요시간(분)	60분(실내 분/실외 60분)
활 동 장 소 및 특 성	주산지 자연관찰로 구간 주산지의 아름다운 경관감상과 함께 주산지내에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적 특징을 해설과 체험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준 비 물	주산지 사계사진, 식물분류표, 체험재료(탁본, 동물 족적, 새소리 파일)		
제 출 자 료	1. 인증 신청서(관련서식-1) 2. 프로그램 진행개요(관련서식-2) 3. 프로그램 시나리오(관련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관련서식-4)		
국립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탐방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해설가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2009년 월 일	신청인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인)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목 표	주산지의 시대적인 변화를 통하여 보전성을 부각하고 주산지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해 설 주 제	주산지의 역사 및 주산지 생태		
해 설 재 료	주산지 사계 사진, 해설카드, 검색표,	소요시간	6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 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동기유발	1. 인사말	- 국립공원 및 주산지의 소개		3'
주제별해설	2. 주산지의 과거	- 주산지의 축조 배경 및 전설 - 주산지 공덕비 탁본	탁본재료	15'
	3. 주산지의 현재	- 주산지 왕버들 해설		5'
주제심화	4. 주산지의 식물	- 검색표를 이용해 식물분류	식물검색표	10'
	5. 주산지의 동물	- 주산지에서 살아가는 포유류 이야기 - <체험> 나는 누구? 나의 발자국을 찾아봐!!	동물 발자국 도장	5'
		- 주산지에서 살아가는 조류 이야기 - <체험> 자연속의 내친구 찾기	MP3 (새소리 파일)	5'
정리	6. 미래를 그려보자	- 자신이 바라는 주산지의 미래를 그림과 시로서 표현	스케치북 A4용지	15'
마무리	7. 마무리	- 주왕산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 소개 및 설문서 작성	탐방프로그램 안내서 설문지 배부	2'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인사말 -국립공원 및 프로그램 소개	<p>1) 인사말</p> <p>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안내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별명)인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웃음 유발)</p> <p>주산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반기듯 날씨까지 이렇게 화창하네요.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u>현생</u>에서 한번을 만나기 위해서는 <u>전생</u>에 무려 천 번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은 그만큼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만남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p> <p>2) 프로그램 소개</p> <p>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주산지입니다. 오늘 해설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주된 내용은 주산지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와 주산지에 숨겨진 동·식물의 생태적 특징을 해설과 체험을 통해 알아본 후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주산지의 미래를 그려봄으로써 주산지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p>3) 국립공원 소개</p> <p>먼저 주산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전에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p> <p>여러분들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가요? (대답 유도)</p> <p>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 및 문화자원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곳을 국민들이 훼손 없이 이용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0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주왕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76년에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p> <p>용어 설명</p> <p>* 현생: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의 삶을 이르는 말. * 전생: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의 삶을 이르는 말.</p>
	1/36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인사말 -국립공원 및 프로그램 소개	<p>비록 12번째로 지정이 되었으나 조선 숙종 때 편찬된 이중환의 택리지(지리를 풍수와 문화에 접목해 만든 인문지리서)에서 ‘돌로써 골짜기를 이루어 마음과 눈을 모두 놀라게 하는 산’ 이라 기록된 것을 보면 주왕산이 이미 오랜 옛날부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주왕산에서 빼어난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계신 주산지인데요.</p>
2.주산지의 과거 -주산지 축조배경 및 전설 	<p>지금부터 “주산지의 숨겨진 생명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p> <p>주산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시선을 집중) 주산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일 것입니다.(공감대 형성) 대부분의 주산지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영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주산지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오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는 주산지는 어떤 모습인가요?(주변을 둘러본다)</p> <p>실제로 보는 주산지의 모습은 영화에서 보는 주산지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영화촬영 당시의 주산지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주산지의 과거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화에서 보던 주산지와 실제로 보게 되는 주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p> <p>주산지는 청송군 부동면 이천리에 위치해 있으며 가로 200m, 세로100m, 수심 8m의 아담한 저수지로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p> <p>주산지는 사계절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계 중에서도 가을이 가장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을단풍 속 새벽 물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p>
2/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2.주산지의 과거 -주산지 축조배경 및 전설</p>  <p>(주산지의 송덕비)</p>	<p>그럼 제가 낮엔 볼 수 없는 안개 낀 주산지 모습을 마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얽”(안개 낀 주산지 대형사진 펼침) 자 어떻습니까?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이렇게 주산지에 안개가 모습을 나타낼 때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사진작가들이 주산지의 신비로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곳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물안개는 그날의 기후나 기온에 따라 시간대가 다르지만 가을철이면 보통 새벽 5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철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주산지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 보다 여러분이 찾아보는 것이 더 주산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산지의 매력을 찾기 위해 잠시 사진촬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산지의 사진을 찍는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빌려드리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산지의 매력을 찾는 사진작가가 되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사진촬영)</p> <p>사진작가가 되어서 주산지를 바라보신 기분은 어떤가요? 조금 색다른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시선을 저의 손끝을 따라 움직여보겠습니다.</p> <p>(별바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 산 정상에 위치한 바위가 보이시죠. 저 바위 이름은 별바위 또는 성암(星岩)이라 부릅니다. 이 별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중 고개를 넘어가다 우연히 바위를 쳐다보니 바위사이에 별이 너무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p>
3/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2.주산지의 과거 -주산지 축조배경 및 전설</p>  <p>(주산지의 송덕비)</p>	<p>과거시험에 자신이 없었던 선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바위 위에 뜬 별을 보고 소원을 빌었고 그 후 소원대로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별바위”라 부르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별바위가 이루어준 소원에는 주산지가 마르지 않도록 빌었던 이전 마을 사람들의 소원도 섞여 있었나 봅니다. 별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있었나요? 지금은 야간 산행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아드님이나 따님의 수능 대박을 위해 밤에 몰래 들어와 별바위를 보고 소원을 비시면 안 됩니다. (웃음)</p> <p>시작부터 신비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주산지인데요, 그럼 이 주산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알아보까요?</p> <p>주산지는 숙종이 서거하고, 경종이 즉위하던 해인 1720년 8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저수지를 만들 당시에는 가뭄 방지용으로 만들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 경관과 저수지 안의 왕버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산지가 완성되었을 때 이곳에 송덕비를 하나 세우게 되었는데요.</p> <p>(송덕비를 지시하며)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비석이 공덕비입니다.</p> <p>송덕비를 보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一 障貯水 流惠萬人 ‘일 장 저 수 유 혜 만 인’ “정성으로 독을 막아 가두어 만인에게 혜택을 베푸니”</p> <p>不 忘 千 秋 維 一 片 碑 ‘불 망 천 추 유 일 편 비’ “그 뜻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한 조각돌을 세운다.”</p> </div>

3/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주산지의 과거 - 주산지 송덕비 탁본  (주산지의 송덕비)	<p>라고 적혀 있습니다.</p> <p>그래서 이 밑의 이전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봄이 되면 길일을 정하여 공덕비 앞에서 주산지의 덕으로 대대손손 풍년이 이루어지길 비는 봄 고유제(告由製)를 지내고 있습니다.</p> <p>그럼 지금부터 주산지가 만들어진 배경의 상징이 되는 송덕비를 탁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p>[체 험] 주산지의 역사를 가져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석의 먼지 등을 털어낸다 ② 한지를 비석의 크기에 맞게 재단하여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인다. ③ 붓으로 물을 바르는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쌀(米자) 모양으로 칠해나간다. ④ 옷솔로 두드린다. ⑤ 4번의 작업을 마쳤으면 잘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⑥ 접시에 먹물을 담고, 만들어 놓은 솜방망이에 먹물을 조금 묻혀 신문지에서 농도를 조절해가며 종이에 먹물을 입힌다. ⑦ 먹물을 모두 입혔으면 먹물이 마르도록 조금 기다렸다가, 비석에 서서히 종이를 떼어낸다. ⑧ 탁본한 종이는 풀밭에 펼쳐 놓아 조금 더 말리고, 비석에 먹물이 묻었으면 닦아내고, 주변 정리를 한다. <p>(탁본 후)</p> <p>탁본의 선명한 글자로 송덕비의 내용을 더욱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탁본은 저희가 주산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금 특별한 선물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3. 주산지의 현재</p> <p>주산지 왕버들 해설</p> 	<p>어떤 사물이든 현재의 모습을 통해 과거를 볼 수 있고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존재 하겠죠? 그럼 이번엔 현재의 주산지는 어떤 모습인가 알아볼까요? 정면에 보이는 주산지 물속의 나무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답 유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앞에 보이는 나무의 이름은 ‘왕버들’입니다.</p> <p>‘왕버들’ 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드나무의 한 종류입니다.</p> <p>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드나무들은 수양버들, 능수버들 등의 종류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버들은 다른 버드나무들과 다르게 가지가 늘어지지 않고 뿌리 쪽 줄기부터 잔가지까지 하늘을 향해 곳곳이 자람에 그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기개가 느껴지는 모습과 다른 버드나무들에 비해서 오랜 세월동안 아름답리나무로 자란다고 하여서 버드나무중의 왕을 의미해 “왕버들”이라고 불립니다.</p> <p>주산지의 왕버들은 스스로도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다른 나무들이 좁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숲에서 자라기보단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주산지 물가에서 위풍당당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기품이 있어 홀로 물가에 자라는 것은 아니지요. 버드나무 종류 자체가 습기가 많고 햇볕이 잘 드는 땅을 좋아해서 메마른 곳이나 그늘지는 숲 속 보다는 강가, 호숫가, 작은 연못가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p> <p>그 중에 왕버들은 그 특성이 강하여서 이곳 주산지처럼 아예 뿌리를 물속에 두고 자라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p> <p>(대답유도)</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3. 주산지의 현재 주산지 왕버들 해설</p> 	<p>네,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익히듯이 나무의 이름, 이름을 갖게 된 유래를 살펴보는 일은 나무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데 있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외모나 평소 행동에서 비롯되는 모습을 보고 별명을 한 가지씩 지어서 부릅니다. 이 중에서 혹시 재미있는 별명이나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십니까?</p> <p>(참여유도)</p> <p>네,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군요. 저도 처음 소개드린 것과 같이 ○○○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웃음유발)</p> <p>우리들의 별명이 외모나 평소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나무들도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나뭇잎의 특징과 형태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면 나뭇가지가 거의 직각으로 퍼져 층을 이룬다 해서 지은 층층나무, 줄기 안을 막대로 밀어내면 국수처럼 하얀 가락이 빠져나와서 국수를 연상시킨다는 국수나무 등이 있습니다.</p> <p>이와 마찬가지로 버드나무는 부드럽다는 뜻의 부들나무로부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버드나무류 중 왕버들은 모양이 웅장하고 크다는 뜻인 왕(王)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30여종이 넘는 버드나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왕버들과 닮은 떡버들, 호랑버들 이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이 왕버들보다 더 크게 자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크고 웅장하게 자란다고 해서 왕버들이라고 구분지어 버리기는 어렵습니다.</p> <p>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왕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검색표 준비했습니다.</p>
6/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 왕버들 검색표 >

1. 가지는 밑으로 처지지 않는다.
2. 잎은 타원형으로 끝은 뾰족한 모양 이고 새로 나온 잎은 붉은 빛이 있다. ---- **왕버들**
2. 잎은 피침모양으로 끝은 점점 뾰족해지는 형태이며 새로 나온 잎은 녹색이다.
3. 잎의 넓이(폭)는 3~5cm정도이다. ----- 쪽버들
3. 잎의 넓이는 3cm 이하다.
4. 겨울눈은 털이 있고, 붉은빛 또는 황홍색이다. ----- 버드나무
4. 겨울눈은 털이 없고, 황록색을 띤다.
5. 포의 양쪽에 몇 개의 밀선이 있고, 탁엽은 뾰족한 모양이다. ----- 분버들
5. 포의 밀선이 없고, 탁엽은 둔한 형태이다. ----- 쯤분버들
1. 가지는 밑으로 처진다.
6. 가지는 꾸불꾸불하다. ----- 용버들
6. 가지는 꾸불꾸불하지 않다.
7. 어린가지는 적갈색이다. ----- 수양버들
7. 어린가지는 연한 황녹색이다.
8. 포의 끝에 털이 있고, 잎 뒷면 엽맥 위에 털이 있다. ----- 능수버들
8. 포의 끝에 털이 없고, 잎 뒷면 엽맥 위에 털이 없다. ----- 개능수버들

3. 주산지의 현재

주산지 왕버들 해설



(검색표 카드를 참가자들에게 한 장씩 나눠준다.)

검색표라는 단어가 생소하죠? 일단 검색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검색표란 내가 알고자 하는 식물의 이름을 찾기 위해 이와 비슷한 모습의 다른 식물들과 생김새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서 정확히 구분하는 표입니다. 여러분께 나눠준 검색표는 우리나라에 사는 버드나무 30여종 중에 큰 키를 가지는 녀석들만 뽑아서 왕버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읽어 보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고 차이점을 한 번 느껴 보세요.

(검색표 카드 관심 유도)

다들 한 번씩 확인 하셨나요? 그럼, 이번엔 제가 빈 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식물이 참 많죠?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4 주산지의 식물 -검색표를 이용한 식물분류</p>	<p>자기가 원하는 식물을 하나 정하고 자신만의 검색표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 식물이 풀이 되든 나무가 되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껏 자기 자신만의 검색표를 만들어 보세요.</p> <p>(검색표 작성)</p> <p>이제 한분 한분씩 검색표 작성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나만의 검색표를 만들어 보라고 한건 누가 검색표를 잘 만드는데에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풀 하나 나무 하나에 잠시나마 관심을 기울이며 몰랐던 자연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p> <p>‘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검색표를 만들며 가졌던 자연에 대한 관심, 이것도 자연보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연보호를 시작하십시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될 겁니다. (웃음 유발)</p> <p>자신만의 검색표 만들기 재미 있으셨나요?(감상듣기)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주산지의 생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주산지의 생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산지의 생물에는 동물과 조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주산지에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산지의 조망대를 비롯한 탐방로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금자리를 만들기 때문이죠.</p> <p>그럼 숨은 주산지의 생물 중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p> <p>주산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주산지 탐방로에 가장 자주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오늘 주산지에서 혹시 다람쥐를 보신 분계십니까? 보신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분도 계시군요.</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5. 주산지의 동물 -주산지에 살아가는 포유류 이야기</p>  <p>(멧돼지)</p>	<p>못 보신 분들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면 입에 도토리 하나를 물고 오물거리는 다람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람쥐 말고도 주산지에는 여러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발자국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직접 보기가 어려워서 동물이 남긴 흔적을 통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으로 공부하면 야생동물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서 그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겠죠.</p> <p>지금부터 나누어 드린 용지에 동물 발자국 모양을 찍으면서 특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p> <p>첫 번째 동물은 생긴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쉽게 보지 못하지만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멧돼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입 밖으로 튀어 나온 송곳니와 아주 강한 모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늙은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가 무려 12cm 정도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송곳니는 질긴 나무뿌리를 자르거나 싸울 때 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슬렁거리며 조용히 다니지만 주변에 새끼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새끼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새끼가 있는 멧돼지에게 다가가는 일 만큼은 조심해야겠죠?</p>

9/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5. 주산지의 동물 -주산지에 살아가는 포유류 이야기</p>  <p>(노루)</p>  <p>(고라니)</p>  <p>(삾)</p>	<p>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의 동물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 두 동물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동물은 노루이고 세 번째는 고라니입니다. 노루와 고라니는 생김새가 비슷해서 멀리서 보거나 특징을 제대로 모르면 솔직히 어떤 것이 노루이고 어떤 것이 고라니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p> <p>노루와 고라니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노루는 고라니보다 몸이 크고 엉덩이에 하얀 반점이 있습니다. 수노루엔 가지뿔이 있으며, 암수 모두 온순한 성격에 겁이 많아서 주로 음지생활을 합니다.</p> <p>반면 고라니는 노루보다 몸이 작지만 크게 놀라지 않으며 귀가 얼굴에 비해 훨씬 크고 둥굽니다. 또한 암수모두 뿔이 없으며 수컷의 위턱에 송곳니가 입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토끼처럼 처음 있었던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되돌아 오는 습성이 있습니다.</p> <p>마지막 사진의 동물은 꿩이라고도 불리는 삾입니다. 고양이와 아주 많이 닮았죠? 하지만 수많은 종류를 자랑하는 고양이와 다르게 삾은 우리나라 토종으로 한 종류뿐입니다.</p> <p>삾의 큰 특징은 고양이보다 몸집이 크고 불분명한 반점이 많이 있습니다. 꼬리에는 분화된 가로띠가 있으며 몸은 비교적 길고 네 다리는 짧습니다. 일명 솟다리 고양이라고도 합니다. (웃음유발)</p> <p>삾은 우리나라에서 설치류 같은 동물을 먹이로 하면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나가야겠습니다.</p>
10/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주산지의 동물 -동물 발자국 찍기	<p>[체 험] 나는 누구? 나의 발자국을 찾아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물 발자국 찍기 도면을 받는다. ② 도면에 있는 동물사진을 보며 그들의 특징을 파악한다. ③ 동물의 특징에 맞는 발자국 도장을 찾는다. ④ 동물과 일치되는 발자국을 찍는다. ⑤ 동물의 발모양과 발자국이 똑같은지 비교해 보고 동물의 발자국을 구별하는 법을 숙지한다.
5. 주산지의 동물 -주산지에 살아가는 조류 이야기  (수리부엉이)	<p>주산지의 숨겨진 생명을 알아보는 마지막 동물은 귀와 눈을 동시에 즐겁게 해주는 조류입니다. 조류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통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자신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산지 탐방로의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지면서 조류들 역시 주산지의 깊은 곳으로 대부분 이동을 하게 되어 새소리를 쉽게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들을 수 없는 새소리를 저희들이 직접 녹음하여 준비 하였습니다. 먼저 새소리를 듣고 난 후 이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고 알아맞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자연속의 내 친구 찾기”인데요 새 소리를 맞히시는 분들께는 저희들이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p> <p>네 그럼 첫 번째 소리를 들어 볼까요? 모두 눈을 감고 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새소리 녹음 파일 재생)</p> <p>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답유도) 역시 소리만으로는 힘들죠? 이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수리부엉이입니다. 수리부엉이는 올빼미과의 맹금류로서 부엉이 중에서 제일 사납고 몸이 큼니다. 나무구멍의 집속에 꿩, 토끼 등의 먹이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부자새”로 불렸고 서양에서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p>

11/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5. 주산지의 동물</p> <p>-주산지에 살아가는 조류 이야기</p>  <p>(까막딱따구리)</p>	<p>그럼 수리부엉이의 외형적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p> <p>수리부엉이는 대형 조류로 머리에 난 귀 모양 깃털이 특징적인데, 그 크기가 칩부엉이의 2배나 됩니다. 깃털은 진한 갈색에 검정색 세로 줄무늬가 있고 눈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숲보다는 바위가 많은 바위산에 살고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하여 새벽 해 뜰 무렵까지 활동하며, 쉴 때는 곧게 선 자세로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살았던 텃새였으나 약용으로 잡는 바람에 그 수가 많이 줄어들어 보호를 받고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멸종위기종 2급과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텃새가 되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간직한 이 곳 주산지에는 살고 있습니다.</p> <p>(두번째 새소리 녹음 파일 재생)</p> <p>지금 소리만 들어서 어떤 종류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제가 예상하는 대로 딱따구리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 새의 이름은 그냥 딱따구리는 아니고 까막딱따구리라고 합니다.</p> <p>딱따구리는 만화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해 우리에게 친숙한 새 인데요. 우리나라에는 7종의 딱따구리가 살고 있고 쇠딱따구리와 오색딱따구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수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따구리류 중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이 있는데요, 까막딱따구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새는 우리나라의 희귀한 텃새로 천연기념물이자 대표적 멸종위기종이며 딱따구리 중에서 가장 대형에 속하는 종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온 몸이 검은색으로 다른 딱따구리와 완전히 다른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p>
12/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5. 주산지의 동물</p> <p>-주산지에 살아가는 조류 이야기</p>  <p>(까막딱따구리)</p>	<p>까막딱따구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전에 들어본 소리대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인데요 주로 번식기에 억센 부리로 나무를 두드려 “뚜루루루루룩, 뚜루루룩”하는 드러밍 소리를 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하게 내는데 딱따구리류 중에서 가장 소리가 크다고 합니다.</p> <p>까막딱따구리가 “끼이야, 끼이야”하고 큰소리로 울거나, 날면서 “크리, 크리, 크리” 소리를 내고 나무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아주 괴팍한 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막딱따구리를 일명 ‘숲의 외과의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p> <p>나무를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딱따구리는 나무속에 숨어 있는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나무속으로 파고 들어간 곤충이 번성하면 그 나무는 병을 앓아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딱따구리가 나타나 외과수술을 통해 그 나무에 사는 곤충을 집중적으로 잡아먹어 나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p> <p>이렇듯 주산지의 왕버들이 오래 우리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까막딱따구리가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자연에 이로움을 주는 까막딱따구리를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자연속에서 배운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p> <p>계속해서 다음 새소리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맞히신 분이 안 계시는데요 더욱 더 분발 하셔야겠네요(웃음유발)</p> <p>(세 번째 새소리 녹음파일 재생)</p> <p>잘 들으셨죠. 이 새소리의 주인공이 누구까요? 모두들 너무 어려워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새는 오리 종류이구요 이것으로 수놓은 이불과 베개를 부부가 덮고 자는데요, ○○금침이라고도 하죠. 예~맞습니다. 바로 원앙입니다.</p>

13/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5. 주산지의 동물 -주산지에 살아가는 조류 이야기</p>  <p>(원앙)</p>	<p>원앙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한 존재인데요, 오리과의 새로 몸은 오리류랑 비슷한데 다리가 약간 긴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새 중에서 가장 깃털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연 속에 있어도 눈에 잘 띄는 노랑, 청색, 흰색, 황금색의 현란하고 고운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컷은 아름답고 화려한 무늬를 가지며 뒤쪽의 머리는 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암컷은 회갈색의 단순한 편입니다. 원앙은 전국에 분포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로 천연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주위가 가려진 나무 밑, 바위, 물위로 뺨은 나뭇가지에 앉아 잠을 자고, 높은 나무 구멍에 집을 짓고 사는데요. 여기 왕버들 고목에 구멍이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원앙이 새끼를 낳고 부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원앙은 나무구멍 속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대부분이 남향에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암컷은 새끼를 위해 자기 가슴의 부드러운 깃털을 부리로 뽑아 알 낳을 자리를 만들어 놀라운 모성애를 볼 수 있죠.</p> <p>여기서 잠시 원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앙은 암컷·수컷이 항상 함께 다닌다고 하여, 화목하고 늘 동반하는 부부를 빗대어 원앙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원앙의 수컷들은 낮이나 밤이나 늘 적으로부터 암컷을 지키려고 그 주변에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p> <p>그처럼 밤이나 낮이나 암컷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습관이 있어 원앙이 사는 곳 주변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룰 지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원앙은 새색시처럼 아름답고 또 일생 동안 변함없이 암수가 서로 사랑하고 지내기 때문에 혼례 때에는 언제나 원앙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며 신랑, 신부가 함께 베고 자는 모서리에 원앙을 수놓은 긴 베개를 원앙침이라고 일컫습니다. 물위를 나란히 떠다니는 원앙의 모습을 보면 서로 싸운다거나 떨어져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5. 주산지의 동물 -주산지에 살아가는 조류 이야기</p>  <p>(원앙)</p>	<p>그래서 사람들은 한 쌍의 원앙 가운데 한 마리가 죽으면 끝내 나머지도 죽음의 길로 갈 것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례를 치를 때 한 쌍의 원앙을 선물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게다가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부가 원앙의 고기를 먹으면 애정이 다시 싹튼다는 속설까지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p> <p>하지만 천연기념물 제327호이자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원앙은 알고 보면 더할 나위없는 '바람둥이'입니다. 원앙의 산란기는 4월 하순에서 7월까지인데, 이를 앞둔 월동기 에서부터 산란기까지 원앙들은 짝짓기에 열을 올립니다. 이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수컷은 자갈색 앞가슴과 부채모양의 오렌지색 날개를 돋우며 암컷을 한껏 유혹합니다. 보통 한 마리 암컷에 열 마리 안팎의 수컷이 몰려와 구애작업을 벌이는데 암컷은 이중 한 수컷을 낙점합니다. 이런 짝짓기는 매년 원앙이 사는 내륙의 물가나 숲속의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렇게 짝을 찾은 후에도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수컷은 곧 암컷을 떠납니다. 이때는 '바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워낙 화려한 자신의 치장 탓에 암컷과 같이 있다간 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강한 부성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이제 마지막 새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주왕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알아맞힐 수 있는 소리랍니다. 마지막인 만큼 잘 들어보시고 꼭 정답을 맞히시길 바랍니다.</p> <p>(마지막 새소리 녹음 파일 재생)</p> <p>잘 들으셨죠? 이 새소리의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p> <p>(손을 든 사람 중 한사람 지명) 방금 들은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 입니까?</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5. 주산지의 동물</p> <p>-주산지에 살아가는 조류 이야기</p>  <p>(솔부엉이)</p>	<p>(대답) 예~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여러분 주왕산에 대해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분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솔부엉이를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 저는 정답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린 이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p> <p>그럼 마지막 주인공인 솔부엉이에 대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p> <p>이 솔부엉이는 주왕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인데요.</p> <p>깃대종이란 말이 생소하시죠? 깃대종이란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동물이나 식물로 지역사회가 국립공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전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주왕산은 솔부엉이와 둥근잎꿩의비름이 깃대종으로 선정되어 보전되고 있습니다. 이 솔부엉이는 올빼미과의 동물로 머리에 귀 모양 깃이 없고 꽂지깃이 길며 부리와 발이 노랗습니다.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여름철새였으나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솔부엉이는 해마다 이곳 주산지를 찾아와 저기 보이는 왕버들의 나무구멍에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며, 먹이는 주로 곤충을 먹지만 박쥐나 작은 들새도 잡아먹곤 합니다.</p> <p>지금까지 “자연 속에서 내 친구 찾기”로 새들의 특징과 그들의 소리를 들어 보았는데요 즐거우셨습니까? (대답유도)</p> <p>이처럼 주산지는 물속에서 뿌리를 박고 주산지의 역사와 함께 해온 왕버들을 비롯하여 현재 수많은 생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p> <p>여러분들도 주산지에 오시기 전에는 그냥 대중 매체로 접하는 경치 좋은 저수지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해설을 통해서 가로 200m, 세로 100m의 작은 저수지가 이렇게나 많은 생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놀라셨죠? (대답 유도)</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배우고 자연 속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해설을 통해서 배워 가신다면 저에게는 어느 때의 해설보다 보람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의 기대에 얼마만큼 큰 대답을 해 주실지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p>
6. 주산지의 미래 -주산지와 교감하기	<p>그럼 오늘 해설의 마지막인 주산지의 미래를 시작하겠습니다.</p> <p>주산지의 과거와 현재는 저희들이 진행했지만 주산지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p> <p>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보고, 듣고, 느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주산지의 미래를 한편의 시나 그림으로 표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에 정해진 미래를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낀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주산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떠오르는 것을 표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끝나신 분은 저희가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p> <p>(시와 그림그리기에 필요한 재료 배부)</p> <p>모두 멋진 시와 그림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로의 느낌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각자 지은 시와 그림에 관한 감상나누기)</p> <p>네 주산지는 여러분들 생각에도 멋진 곳이죠? 이렇게 멋진 곳을 잘 보전하고 나중에 이곳을 찾게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답유도) 맞습니다. 식물을 함부로 꺾거나 채취하지 말기, 주산지내에 들어가지 말기, 쓰레기 버리지 말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p>
17/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 마무리 - 설문작성 및 끝인사	<p>단지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호를 한 번씩 외치도록 하겠습니다.</p> <p>첫째, 지금부터, 둘째, 나부터, 셋째, 쉬운 것부터(복창)</p> <p>주산지가 만들어진 목적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 주산지에 서식하고 있는 왕버들을 비롯한 여러 동·식물들이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이곳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많은 생명들이 살아서 숨 쉬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나눠드리는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주왕산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준다.)</p> <p>주왕산국립공원에는 주산지 해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만나 뵙길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과 “주산지, 숨겨진 생명이야기”를 함께한 OOOO(자신의 별명)인 자연환경안내원 OOO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18/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 마음과 눈을 모두 놀라게 하는 산, 주왕산 (택리지 中)
참고자료	<p>택리지란 조선시대 1751년(영조 27)에 실학자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1690~1756)이 저술한 지리서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적인 학풍을 바탕으로 인문 지리학에 대한 관심과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았다. 때마침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당쟁이 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기 좋은 땅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저술하였다.</p> <p>택리지를 박종지(博綜誌)라고도 한다. 저술 당시에는 책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뒤에 이공익(李肯翊)이 이를 ‘팔역복거지(八域卜居志)’라 하였는데, 약칭하여 ‘팔역지(八域志)’라는 이명(異名)이 생겼다. ‘택리지’라는 이름도 후인들이 그 내용을 보고 붙인 것이라 전한다.</p> <p>‘팔도총론(八道總論)’과 ‘복거총론’ 2편으로 나누어서 저술하였는데 ‘팔도총론’에서는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그 지리를 논하고 그 지방의 지역성을 출신인물과 결부시켜서 밝혔고(地人相關), ‘복거총론’에서는 살기 좋은 곳을 택하여 그 입지조건을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였다.</p> <p>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주왕산을 “청송(靑松)의 주방산은 골이 모두 돌로 이루어져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며, 샘과 폭포도 지극히 아름답다.”라고 기술하였다.</p>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정일, 『다시 쓰는 택리지 5-우리에게 산하는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6 ○ 『한국의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2004

19/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주산지 배경 영화, 드라마,cf
참고자료	 <p>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기덕 감독</p>  <p>KBS 드라마 '황진이' 하지원 출연</p>
참고문헌	

20/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주산지 공덕비
참고자료	<p>주산지는 숙종이 서거 하고 난 뒤 경종이 즉위 하던 해인 1720년 8월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10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주산지를 만들 당시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기 힘들어 가뭄 방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역시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산지의 비경과 물속에서 왕버들이 살아간다는 희귀한 자연현상으로 더욱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p> <p>지금 보시는 비석은 주산지를 만든 이들이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그 내용을 풀어본다면</p> <p>一 障貯水 流惠萬人 不忘千秋 維一片碑 일 장 저 수 유 혜 만 인 불 망 천 추 유 일 편 비</p> <p>정성으로 독을 막아 가두어 만인에게 혜택을 베푸니 그 뜻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한 조각들을 세운다.</p> <p>라는 뜻으로, 매년 봄에 이진리 마을 사람들은 길일을 정해 대대손손 풍년을 기리는 봄 고유제(告由製)를 지낸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참고문헌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숙종
참고자료	<p>제19대왕 : 숙종(1661-1720)</p> <p>7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 되었고 1674년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곧바로 친정을 시작하였다. 숙종 시대는 조선왕조를 통틀어 당파간의 정쟁이 가장 심했으나, 숙종은 비상한 정치 능력을 발휘하여 왕권을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켰다. 임란과 병자호란 이후 계속 되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조선사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한 왕으로 평가된다.</p> <p>※ 경종</p> <p>제20대왕 : 경종(1688-1724년)</p> <p>경종은 숙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희빈장씨 소생이다. 이름은 균이었다. 왕자 균은 생후2개월이 될 무렵 숙종의 정비인현왕후의 양자로 입적되어 원자 정호를 받았으며 3세 때 세자에 책봉되었다. 경종 시대는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정권 다툼으로 조정이 항상 피바람에 휩싸였고 이 때문에 경종은 재위 4년간 뚜렷한 치적을 남기지도 못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경종 가계도</p> <p>숙종 ————— 희빈 장씨</p> <p>제20대 경종 (부인: 2명, 자녀: 없음, 능: 의릉)</p> <p>단의왕후 심씨</p> <p>선의왕후 어씨</p> </div>
참고문헌	이한우, 『숙종, 조선의 지존으로 서다』,해냄, 2007 지두환, 『경종대왕과 친인척』,역사문화, 2009
22/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탁본
참고자료	<p>탁본(拓本) 혹은 탐본(栴本)이라고도 한다.</p> <p>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탁본이라는 용어가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돌이나, 금속, 나무 등에 새겨진, 문양이나 글씨를 종이에 그대로 떠내는 것(복사)을 말한다. 사진기가 없고, 별다른 복사 도구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이 가장 많이 사용 하였던 방법이었다. 후대에 파손되어 없어진 비석의 글씨 등도, 옛사람이 남겨놓은 탁본으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추사 김정희는 일찍이 금석학의 중요성을 깨달아 전국을 누비며 비석을 조사, 진흥왕순수비의 존재 등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이 탁본 작업이었다.</p> <p>※ 탁본의 재료</p> <p>◎ 한지- 인사동에 가서 질 좋은 질긴 것으로 구입 한다. 너무 얇으면 물에 젖었을 때 쉽게 찢어지고, 또 너무 두꺼우면 글씨가 잘 배겨 나오지 않으므로 좋지 않다.</p> <p>◎ 옷솔 - 옷 터는 솔을 말한다. 돼지털(돈모)로 된 옷솔을 준비한다.</p> <p>◎ 솜방망이 - 이름은 솜방망이지만, 솜은 잘 쓰지 않는다. 솜은 먹물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다. 무명천을 가로 25cm, 세로 25cm의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 안을 왕겨, 좁쌀로 채운 후, 둥글게 만들어 고무줄로 팽팡 묶는다. 2개 이상을 만든다.</p> <p>◎ 먹물 - 벼루에 직접 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여의치 않은 때는 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먹물에 백반 가루 조금을 타서 사용한다. 백반은 먹물의 선명도를 유지한다.</p>
참고문헌	병진, 『탁본의 세계』, 일지사, 1997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탁본의 방법
참고자료	<p>① 먼저 비석을 잘 털어낸다. 기나긴 세월 비바람을 맞고 서 있었으므로 흙먼지가 많이 앉아 있다. 절대로 박박 문질러서는 안 된다.</p> <p>② 한지를 비석의 크기에 맞게 재단하여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인다.</p> <p>③ 붓으로 물을 바르는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쌀(米)자 모양으로 칠해나간다. 먼저 十자를 만들고, 그 후에 米자가 되도록 붓으로 물을 바른 후, 나머지 공간에도 마저 물을 바른다.</p> <p>④ 옷솔로 두드린다. 물을 골고루 다 발랐으면, 옷솔로 두드린다.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종이가 마르기 전에 두드려야 종이가 글자에 들어가 박히기 때문이다. 종이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되면,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후 다시 두드린다.</p> <p>⑤ 4번의 작업을 마쳤으면 잘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나 이때에도 너무 바짝 말라도 안 되고, 덜 말라도 안 된다. 손으로 만져보아 약간의 습기만이 남아 있을 정도가 적당하다.</p> <p>⑥ 접시에 먹물을 담고, 만들어 놓은 솜방망이에 먹물을 조금 묻혀 신문지에서 농도를 조절해가며 종이에 먹물을 입힌다.</p> <p>⑦ 먹물을 모두 입혔으면 먹물이 마르도록 조금 기다렸다가, 비석에서 서서히 종이를 떼어낸다.</p> <p>⑧ 탁본한 종이는 풀밭에 펼쳐 놓아 조금 더 말리고, 비석에 먹물이 묻었으면 닦아내고, 주변을 정리한다.</p>
참고문헌	병진, 『탁본의 세계』, 일지사, 1997

24/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왕버들의 외부 형태
참고자료	충청도 및 강원도 이남의 냇가에서 자라는 낙엽교목으로서 높이 20m, 지름 1m이상이며, 껍질은 회갈색이고 깊이 갈라진다. 1년생 가지는 황록색이며 털이 있으나 없어지고 겨울눈은 길이 2~3mm로서 계란모양이다. 잎은 새로 나올 때는 붉은빛이 돌며,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길이 3~10cm로서 표면은 털이 없고, 거치가 있으며 뒷면은 흰빛이 돌고 털이 없거나 기부 가까이에 잔털이 있다. 수꽃은 위를 향하며 대에 털이 있고, 밀선은 6개이지만 3~5개로 될 때도 있다. 수술은 6개이며 수술대에 털이 없고 꽃밥은 황색이다. 암꽃은 위로 비스듬히 서고 길이 2~4cm로서 화축에 융모가 있으며 밀선은 1개이고 자방은 대가 있으며 암술대는 짧다. 열매는 길이 5~10cm이고 삭과(3개 이상의 봉선을 가지고 열개되는 열매, 내부에 종자를 지닌다.) 난형이며 길이 3mm 정도로서 털이 없고 2개로 갈라진다. 꽃은 잎과 같이 4월에 피며 열매는 3월에 익는다. 가지와 엽액에 털이 있는 것을 털왕버들 (<i>Salix chaenomeloides</i> ver. <i>pilosa</i> Kimura)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0 서민환·이유미,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나무 백과사전』, 현암사, 2003 임경빈, 『나무백과(4)』, 일지사, 1997

25/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왕버들의 이름
참고자료	<p>왕버들은 가지가 굵고 튼튼하여 버드나무 종류이면서도 거의 늘어지지 않는다. 가느다란 가지가 길게 늘어져 산들바람에도 하늘거리는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수백 년을 거뜬히 살 수 있으며 아름답기로 자라고 모양새가 웅장해 우리나라에 자라는 30여 종의 버드나무 가운데 왕으로 꼽힌다. 그래서 왕버들 이라고 한다.</p> <p>이 ‘버들의 왕’은 숲 속에 들어가서 다른 나무들과 잡스럽게 경쟁하며 살지 않는다. 아예 개울가, 호숫가 등 유난히 물이 많은 곳만을 선택해 어릴 때 빨리 자라버림으로써 다른 나무들을 압도한다. 그래서 하류(河柳)라는 이름도 생겼다. 자연히 옛 선비들의 풍류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곳 청송 부동면의 주산지를 비롯하여 남원 광한루, 충북 제천 의림지, 들의 전국의 이름난 명승지에는 왕버들이 그 멋을 뽐내고 있다.</p> <p>왕버들은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며 때로는 거의 물속에 잠긴 채로 수백 년 넘게 삶을 이어간다. 그래서 나무속이 잘 썩고 줄기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 구멍 속에 잘못 들어갔다가 죽어버린 곤충이나 작은 짐승이 동물로부터 나온 인(隣)은 비 오는 날 밤에 푸른 불빛이 번쩍이게 하는 마술을 부린다. 바로 도깨비불이다. 그러나 도깨비는 사람에게 해로운 짓은 하지 않는 법이다. 장난이나 심술을 부리긴 해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는, 의리 있는 존재였다. 왕버들을 귀류(鬼柳)라고도 부르는데 ‘도깨비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친숙한 이름이 아닐까 싶다.</p>
참고문헌	<p>박상진, 『궁궐의 우리나라』, 놀와, 2001</p> <p>서민환·이유미,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과사전』, 현암사, 2003</p> <p>임경빈, 『나무백과(4)』, 일지사, 1997</p>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왕버들 검색표
참고자료	<p>왕버들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30여종의 버드나무 중 10m이상 자라는 키가 큰 교목에 속한다. 교목류에 속하는 버드나무 종류는 왕벌들, 쪽버들, 버드나무, 분버들, 쯤분버들, 용버들, 수양버들, 능수버들, 개수양버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왕버들을 알아보기 위해선 다음의 검색표를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지는 밑으로 처지지 않는다. 2. 잎은 타원형으로 끝은 침두이고 새로 나온 잎은 붉은 빛이 있다. - 왕버들 2. 잎은 피침형으로 끝은 점침두이며 새로 나온 잎은 녹색이다. 3. 잎의 넓이(폭)는 3~5cm정도이다. ----- 쪽버들 3. 잎의 넓이는 3cm 이하다. 4. 겨울눈은 털이 있고, 붉은빛 또는 황홍색이다. ----- 버드나무 4. 겨울눈은 털이 없고, 황록색을 띤다. 5. 포의 양쪽에 몇 개의 밀선이 있고, 탁엽은 침두이다. ----- 분버들 5. 포의 밀선이 없고, 탁엽은 둔두이다. ----- 쯤분버들 1. 가지는 밑으로 처진다. 6. 가지는 구불구불하다. ----- 용버들 6. 가지는 꾸불꾸불하지 않다. 7. 어린가지는 적갈색이다. ----- 수양버들 7. 어린가지는 연한 황녹색이다. 8. 포의 끝에 털이 있고, 잎 뒷면 엽맥 위에 털이 있다. ----- 능수버들 8. 포의 끝에 털이 없고, 잎 뒷면 엽맥 위에 털이 없다. ----- 개능수버들
참고문헌	남효창, 『우리 나무 찾기 365, 주머니 속 나무 검색표』, 계명사, 2008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 멸종위기종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닐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I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CITES 부속서I에서 정한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II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닐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CITES 부속서 II에서 정한 것 ○ 천연기념물 :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지질과 그 밖의 천연물 ○ 한국 특산식물 : 한반도의 자연환경에서 적응진화 해온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분포하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식물 ○ 깃대종 : 특정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종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깃대종』, 국립공원관리공단, 2008 ○ 『주왕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서식현황과 보호·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2006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	---------

용어정의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동물들의 발자국을 찍어봐요!!

왜?? 짐승의 흔적을 알아야 할까?

아주 먼 옛날에는 짐승흔적을 알아야 먹고 살았어요. 짐승의 똥이나 발자국을 가려 볼 줄 알아야 뒤를 쫓아서 사냥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산짐승은 보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러나 짐승에 대해 알고 싶으면 짐승이 남긴 흔적을 잘 살펴야 해요. 발자국이나 먹이를 먹은 자리나 똥을 살펴보면 어떤 짐승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으로 공부하면 산짐승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서 그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요.

동 물	발 자 국
	
	
	
	



국립공원 | 주왕산
KOREA NATIONAL PARK

참고문헌	
------	--

29/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멧돼지, 삵	
참고자료	 <p><멧돼지></p>	<p>유라시아멧돼지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서쪽의 개체보다 동쪽의 개체가 크며, 섬의 것보다 대륙의 것이 크다. 한국에는 대륙멧돼지와 멧돼지가 있다. 산지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지: 깊은 산, 특히 활엽수가 우거진 곳 -먹이: 토끼·들쥐 등 작은 짐승부터 어류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무 것이나 먹는 잡식성동물
	 <p><삵></p>	<p>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산간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종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지: 삼림 지대의 계곡과 암석층 가까운 곳이며, 물가 또는 관목으로 뒤덮인 산간 개울에서 생활한다. -먹이: 작은 들쥐류를 잡아먹지만 노루나 고라니의 어린 새끼 또는 야생 조류, 날다람쥐, 산토끼, 꿩 등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한다. -실태: 야생 동·식물 II급
참고문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동물명집』, 아카데미 서적, 1997	
30/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노루, 고라니	
참고자료	 <p><노루></p>	<p>뿔은 수컷에게만 있으며, 3개의 가지가 있는데, 11~12월에 떨어지고 새로운 뿔은 5~6월에 완전히 나온다. 꼬리는 매우 짧다. 목과 볼기에는 흰색의 큰 얼룩무늬가 나타난다.</p> <p>-서식지: 야산과 같은 산림지대나 숲 가장자리</p> <p>-먹이: 잡초나 나무의 어린 싹·잎·열매 등을 먹는다.</p> <p>-특이사항: 겨울에도 양지보다 음지를 선택하여 서식</p>
	 <p><고라니></p>	<p>보노루·복작노루라고도 한다. 암수가 모두 뿔이 없다. 위턱의 송곳니가 엄니 모양으로 발달하였는데, 수컷의 송곳니는 약 6cm 정도로 입 밖으로 나와 있으며, 번식기에 수컷끼리 싸울 때 쓰인다. 눈 밑에 냄새를 분비하는 작은 샘이 있다.</p> <p>-서식지: 갈대밭이나 관목이 우거진 곳</p> <p>-먹이: 갈대나 거친 풀, 사탕무 등을 먹는다.</p>
참고문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동물명집』, 아카데미 서적, 1997	

31/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수리부엉이, 까막딱따구리	
참고자료	 <p><수리부엉이></p>	<p>한국의 올빼미과 조류 중 가장 크다. 큰 집과 긴 귀깃으로 쉽게 구별된다. 눈은 주황색을 띤 노란색이며 등과 날개덮깃에는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과 진한 갈색의 세로줄무늬가 있다. 바위나 나무 위에 직립자세로 앉는다.</p> <p>-서식지 : 산림, 암벽, 바위산 -실 태 : 천연기념물 제32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p>
	 <p><까막딱따구리></p>	<p>딱따구리과에 속하는 희귀한 텃새로 고목이 무성한 평지에서 높은 지대에까지 널리 서식한다.</p> <p>-수 컷 : 몸 전체 검은색 & 머리꼭대기가 붉음 -암 컷 : 몸 전체 검은색 & 뒷머리만 붉음 -서식지: 중부 산악지방 -실 태 : 천연기념물 제242호</p>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2000 ○ 원병오, 『한국동식물도감 25-동물편』, 문교부, 1981 ○ 원병오, 『한국의 새-천연기념물』, 범양사,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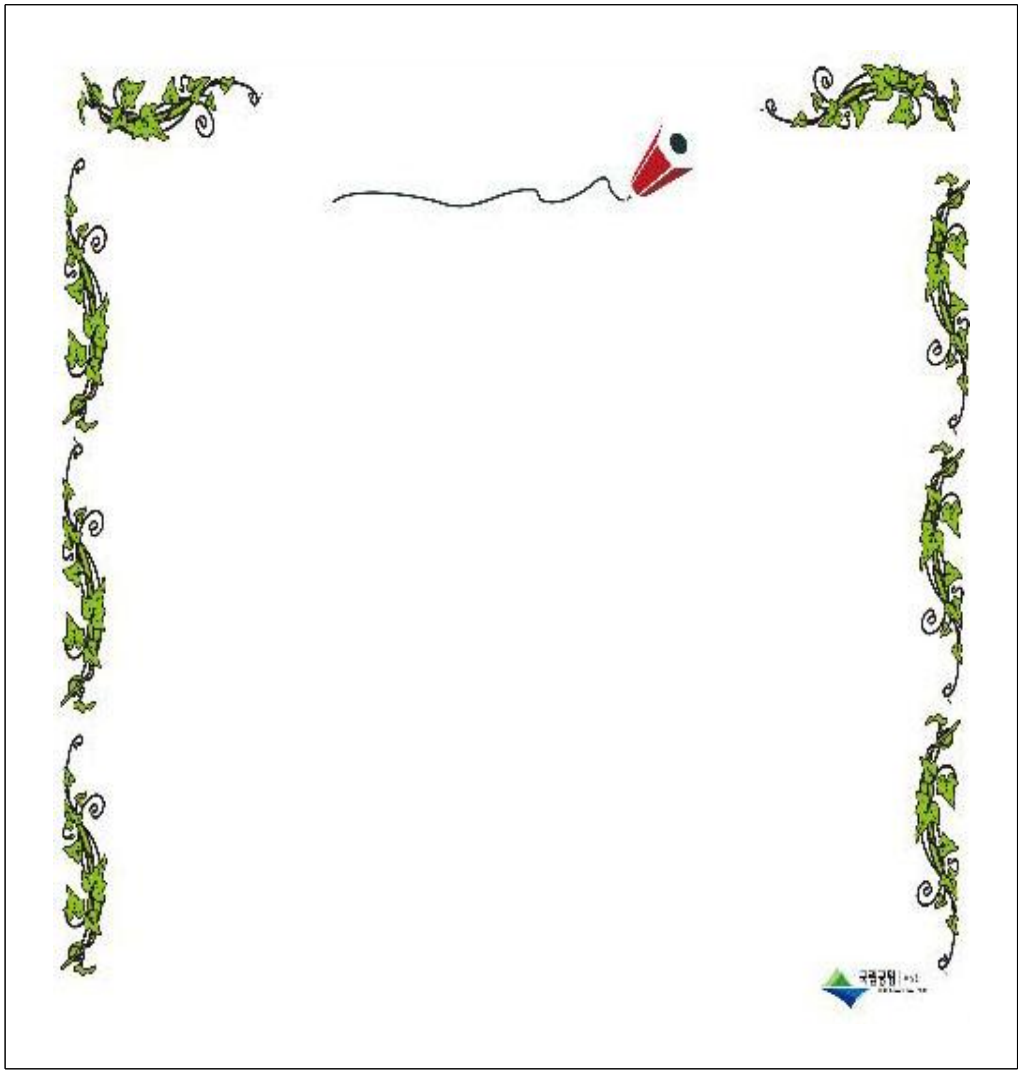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왕산,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원앙, 솔부엉이	
참고자료	 <p><원앙></p>	<p>오릿과의 물새이며 몸길이 43cm 가량 된다. 수컷의 몸빛은 여러 가지이나 암컷은 갈색이다. 나무에 즐겨 앉고 높은 나무 구멍에 집을 짓고 살며 암수가 늘 함께 다닌다.</p> <p>-서식지: 극동지역의 담수, 산간계곡 물가에 있는 무의 구멍</p> <p>-실 태: 천연기념물 제327호</p>
	 <p><솔부엉이></p>	<p>머리에 귀 모양 깃이 없고 꽂지깃이 길다. 한국에서는 흔한 여름새이며 도시 공원이나 고궁·야산에서 흔히 번식한다.</p> <p>-서식지: 숲, 도시 공원</p> <p>-생 식: 1회 3~5개의 알을 낳음</p> <p>-실 태: 주왕산 깃대종</p> <p>천연기념물 제324호</p>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우신, 구태희, 박진영, 『야외원색도감 한국의 새』, LG상록재단, 2000 ○ 원병오, 『한국동식물도감 25-동물편』, 문교부, 1981 ○ 원병오, 『한국의 새-천연기념물』, 범양사, 1984 	
33/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주산지 미래, 시와 그림 그리기
참고자료	 <p><주산지 미래, 시와 그림 그리기 용지></p>
참고문헌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주산지, 숨겨진 생명 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	---------

용어정의	주산지 해설 구간 설명도
------	---------------

참고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주산지 해설 구간 설명도></p>
------	--

참고문헌	
------	--

35/36	신청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